

“세상의 모든 불효녀를 찾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히스토리 기획전
‘불효녀클럽’展 내년 2월22일까지

‘강의 퍼포먼스’ ‘불효듀스 101’ 등
관객 참여형 전시로 ‘孝’ 의미 고찰



불효녀 클럽
‘불효녀클럽’ 전시장에 들어서면 학교 동아리실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쌀 300석에 팔려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많은 사람들이 ‘효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심청이의 지극한 효심이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비해 인권의 변화가 큰 여성들의 입장에서 ‘효’라는 이름으로 억압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히스토리 여성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불효녀클럽’이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학교 동아리실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클럽을 상징하는 커다란 휘장이 입구에 자리해있고 그 옆으로는 ‘불효녀클럽 신입회원 모집 신청서’가 비치돼있다.

이번 전시는 재단에서 공모한 제5회 히스토리 기획전시 수상작이자 지금껏 여성들을 구속해왔던 불효녀성을 찾는 연구모임 ‘불효녀클럽’ 연구원들의 결과물이다.

전시를 제작한 이들은 연출, 시노그래피, 그래픽 디자이너(도민주·문다은·양재은) 3인을 주

축으로 활동하는 창작그룹 MOI2다.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로 간주되는 소재들을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시 ‘불효녀클럽’은 현대사회 속 다양한 불효녀의 양상을 드러내며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다.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효녀클럽 연구실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엿보고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전시의 몰입도를 더욱 높인다.

전시장 한 가운데서는 강의 퍼포먼스가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다. 일타 강사로 나선 작가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심청전을 재해석한다. 심청전 이야기 속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지금 와서 살펴보면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다섯 개의 보기를 두고 해설 강의에서는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효도다’라는 답안을 제시한다. 이는 전통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효’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선 똑같이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불효에 투표하세요’라는 주제의 ‘불효듀스 101’도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딸’이라 호명되는 친구, 언니, 동생 혹은 당신을 스쳐 지나간 누군가가 ‘자신이 불효녀라고 느낀 순간’을 정리한 차트다. 그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불효모먼트(불효의 순간)’ 아래에는 각 상황에 대한 광주 여성 시민들의 의견이 첨부돼 있다.

‘흡연과 과음’, ‘늦은 귀가’, ‘부모님 몰래 한 타투’,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는 것’, ‘애교가 없음’, ‘미혼과 비혼 선언’ 등 다양한 사례에 0부터 1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런 상황이 진정한 불효인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참여형 활동이다.

이밖에도 불효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비로소 불효녀를 선언하며 자유로워진 이들의 이름과 새롭게 불리고 싶은 이름을 상패로 전시한 ‘명예의 전당’, 또 다른 불효녀 선언을 기다리는 ‘신입회원 모집’ 등 다양한 색션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는 내년 2월22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천년을 산 늙은 학 서리처럼 흰 옷이 깨끗하구나

장희구 박사 (483)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우리 선현들은 청명(淸明) 한식(寒食)이라고 했다. 청명은 24절의 하나로 4월5일경에 들며, 한식은 24절기에는 들지 않지만 청명 다음날인 4월6일경에 드는 명절의 하나다. 한식은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여겼고, 동지로부터 105일째 든다. ‘음력 2월 한식에는 꽃이 피지 않고, 3월 한식에는 꽃이 핀다’고 했다. ‘한식날 봄바람이 땅을 깎으며 외치는데 평평한 들의 제비와 참새들은 깃과 털이 높다’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寒食松溪途中(한식송계도중)
오봉이호민

한식 날 봄바람 땅 깎으며 외치는데
평평한 들의 제비와 참새 깃털 높고
늙은 학 깨끗하러라 파도 소리 꿈꾸며.
寒食東風剗地號 平郊燕雀羽毛高
한식동풍전지호 평교연작우모고
千秋老鶴霜衣潔 獨立巖巖夢海濤
천추로학상익결 독립암암동해도



서 가져오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어느 평범한 속에서 찾아내려 했음을 보인다.

‘천년을 산 늙은 학 서리처럼 흰 옷이 깨끗하구나’(寒食松溪途中)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1553-1634)으로 조선의 공신이다. 1584년(선조 17) 문과에 급제, 응교·전한을 거쳐 집의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용만(의주)까지 왕을 모셨으며, 룡오양(遼陽)에 가 이어송에게 구원을 청해 평양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부제학, 예서판서를 역임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한식날 봄바람이 땅을 깎으며 외치네 / 평평한 들의 제비와 참새들은 깃과 털이 높네 // 천년을 산 늙은 학 서리처럼 흰 옷이 깨끗하구나 / 바위 위에 홀로 서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꿈꾸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한식날 소나무 시내 길을 걸으면서’로 번역된다. 봄이 되면서 길동면에 들어갔던 벌레들이 기지개를 켜다. 눈 속에 파묻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벌벌 떨던 겨우살이들도 제법 기지개를 켜면서 제 활동을 시작한다. 텃새인 참새와 철새인 제비와 학들도 제 세상을 만났다고 온 세상을 선회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만상이 기지개를 켜는 형상이다.

시인의 시상은 자연의 깊은 높은 곳에

※한자외구
寒食: 한식날. 東風: 봄바람. 剗地號: 땅을 깎으며 외친다. 平郊: 평평한 들. 燕雀: 속은 보통사람의 비유. 다음 구에 나오는 老鶴과 대조. 羽毛高: 깃과 털을 높이 세운다. // 千秋: 천년. 老鶴: 늙은 학. 霜衣潔: 서리 옷이 깨끗하다. 獨立: 독립. 巖巖: 바위 위. 夢海濤: 바다와 파도의 꿈을 꾸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가)한국한문교육연구원이시장>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방송 분야 꿈나무 키운다

오늘 ‘2022 중딩영화제 시상식’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방송 분야 꿈나무 발굴을 위한 ‘2022 중딩영화제 시상식’을 21일 오후 2시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중딩영화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한다. 학교미디어 교육의 다양한 우수사례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 유일의 중학생 영화제다.

올해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14개 권역 125개 청소년팀이 참여했으며 작품 장르 또한 극영화·다큐멘터리·뮤직비디오·브이로그·애니메이션·뉴스 등 다양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딩영화제 시상식 모습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한 콘텐츠가 접수됐다. 1, 2차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을 비롯한 5개 부문 수상 결과가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특히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올해 시상식에는 청소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2부 행사로는 ‘더 나은 학교미디어교육을 위한 좌담회’가 진행된다.

조현용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중딩영화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감사드리다”며 “3년 만의 대면 시상식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노래·유머가 함께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24일 남구문화예술회관

한국 감성 종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오는 24일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36회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대통령 수상자인 최미애 원장의 ‘허튼춤’으로 막을 울리며 가수 채현이 ‘사랑이란 그림’, ‘여기서’, 가수 김성배가 ‘이별의 플랫폼’, ‘연모’를 들려준다. 다음으로 가수 손희종이 ‘추억의 소야곡’ 등



무대를 선보이며 가수 김태이가 ‘어머나’, ‘꽃을 부르며’ 공연을 선사한다. 이어 양 소장은 ‘한 많은 대동강’, ‘사랑이 이런 건가요’ 무대를, 가수 신동석은 ‘사랑꽃’, ‘황토 십리길’을, 가수 채효의 대금 연주 ‘기다리는 마음’ 등 무대가 펼쳐지며 끝으로 양 소장이 유머 및 힐링 강의를 하며 공연을 마친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